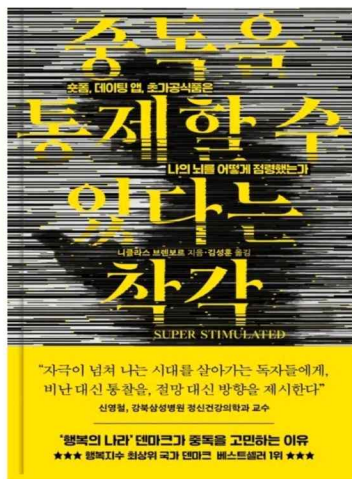


2026. 경남교육 사서가 권하는

7월의 책

초·중·고
교양리더



**중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니클라스 브렌보르 글

고딩



판데모니움

유상아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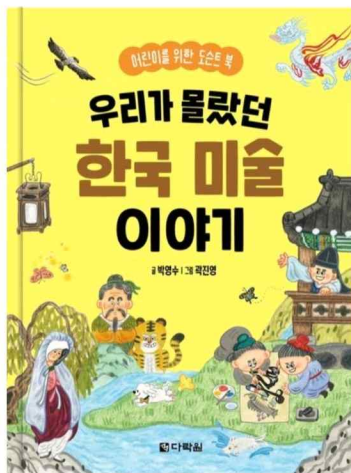
중·고
교양리더



**세상을 바꾸는
픽토그램 이야기**

배성호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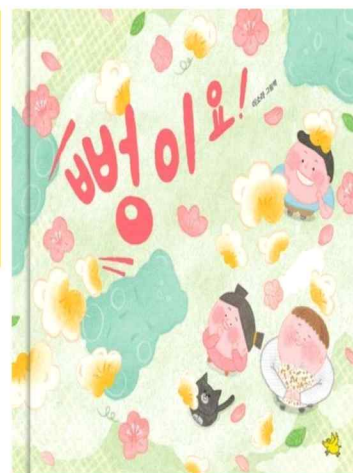
초·중·고
초등교



**우리가 몰랐던
한국 미술 이야기**

박영수 글, 곽진영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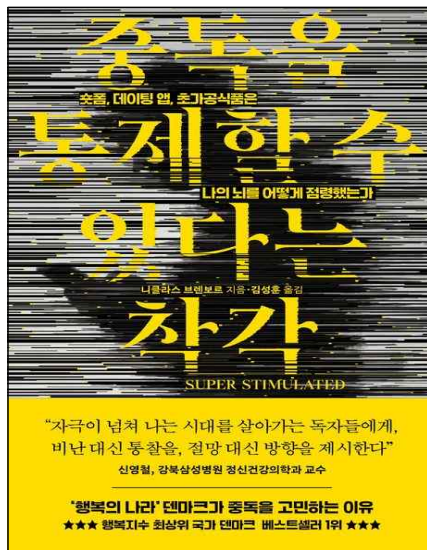
초·중·고
초등교



뽕이요!

이소라 글·그림

이 추천도서 요약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사서들로 구성된
〈경남교육 사서가 권하는 이달의 책〉 TF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중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니콜라스 브렌보르 지음

위즈덤하우스 / 2026 / 364쪽

초자극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책 속 구절, 3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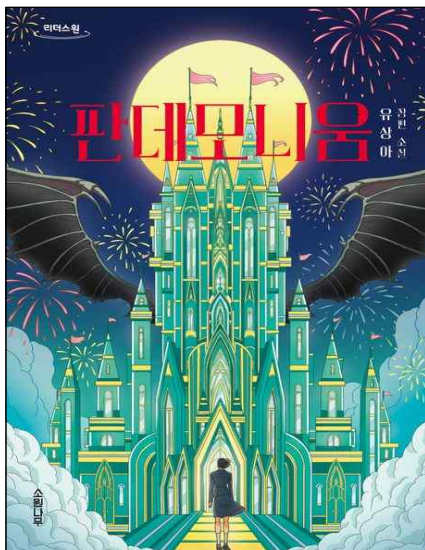
자극에 사로잡힌 뇌, 무너지는 일상과 행복

올해 3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청소년의 고위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규제에 나섰다. 중독의 우려 때문이다. 다른 국가에서는 연령 제한만이 아닌 콘텐츠나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규제를 검토 중이다. ‘좋아요’와 무한 스크롤의 덫에 갇힌 이가 청소년만은 아니다. 오늘도 우리는 알림창에 이끌려 몇 분, 몇 시간이나 깜빡이는 화면을 들여다 보고 있었던가!

덴마크의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분자생물학자인 저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중독과 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양한 실험과 증거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식품, 포르노, 약물, 소셜미디어. 모두 뇌를 자극해 쉽게 헤어날 수 없게 만든다. 배가 불러도 손을 뗄 수 없는 초가공식품이 비만을 부르고,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르몬을 자극하는 약물이 만들어진다. 중독이 또 다른 중독을 낳는 셈이다.

보석딱정벌레 수컷은 암컷을 닮은 크고 반짝이는 갈색 맥주병에 끌려 진짜는 외면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 탈수로 죽어간다. 자연과 닮았으나 이를 능가하는 초자극 때문이다. 인간도 결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산업계는 이윤을 위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시간과 관심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 두도록 자극을 최적화한다.

그렇다면 중독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 통제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저자의 말처럼, ‘방아쇠’가 되는 촉발 요인을 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에 더해 중독 요소를 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뇌를 새롭게 훈련 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중독을 개인의 나약한 의지력 문제가 아닌, 생리학·뇌과학 차원에서 접근한 이 책을 통해 우리를 사로잡는 자극의 정체를 파악하고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판데모니움

유상아 글

소원나무 / 2026 / 240쪽

지옥에 갇힌 친구에게, 나의 다음 장면을 응원한다는
인사를 남긴 친구에게 이제 내가 답장을 쓸 차례다.

책 속 구절, 159쪽

지옥의 도성에서 마주한 청소년 범죄의 실체

화려한 성채 뒤로 검은 날개가 펼쳐져 있고 한 명의 소녀가 그 앞에 위태롭게 섰다. 지옥의 도성이라는 뜻의 ‘판데모니움’은 모든 악마가 총집결하는 무법지대로 책의 전체 내용을 상징한다. 화이트 해커를 꿈꾸는 고등학생 은호가 친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은 소설로, 청소년 범죄의 실체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개학을 앞둔 어느 날, 친구 선정이 투신한다. 은호는 죽은 선정에게서 의문의 문자를 받고 그것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선정이 남겨놓은 단서들을 하나씩 해석하며 해킹 기술을 활용해 죽음의 진실에 점차 가까워진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사건을 추적해가는 은호는 학교 안팎에 벌어지는 갖가지 악랄한 범죄에 친구들이 얽혀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도박, 고리대금, 마약, 돈을 미끼로 한 성 착취 영상 촬영과 유포까지 하나의 범죄 끝에는 다른 범죄가 이어지고 있었다. 작품은 이러한 청소년 범죄가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한다는 점과 하나의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범죄의 덫에 걸린 친구들을 구하려는 은호의 사투는 마침내 선정의 죽음에 충격적인 배후가 있음을 세상에 드러낸다.

빠르고 긴장감 넘치는 전개는 청소년을 노린 범죄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는 동시에 버랑 끝에 몰린 아이들의 치열한 연대와 우정을 그리고 있다. 극 속에 등장하는 ‘파우스트’, ‘메피스토펬’ 처럼 고전 속의 등장인물을 차용하여 추리와 해석의 재미도 더한다. 악을 뿌리 뽑지 못하고 그것이 반복되도록 두는 사회를 향해, 작가는 위험에 빠진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세상을 바꾸는 픽토그램 이야기

배성호 글

철수와영희 / 2026 / 120쪽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자는
약속입니다.

책 속 구절,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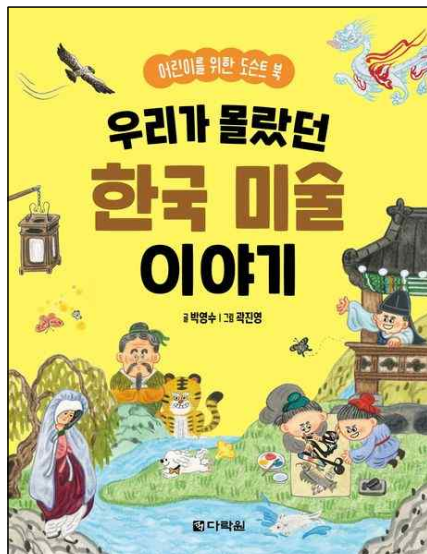
그림 문자로 배우는 유쾌한 사회적 상상력

글을 몰라도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기호가 있다. 매일 다니는 화장실, 버스 정류장, 엘리베이터는 물론 옷, 약병, 과자 봉지에서 빠짐 없이 등장한다. 바로 간단한 모양과 색깔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픽토그램’이다. 이 책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픽토그램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픽토그램까지 폭넓게 보여준다.

각각의 모양과 색깔에 따라 숨겨진 뜻이 다르다. 빨간색 사각형은 긴급이나 위험 상황을 나타내고 노란색 삼각형은 경고, 주의를 말한다. 파란색 원형은 지시와 안내를, 초록색 사각형은 안전이나 구호를 나타낸다. 이렇게 다양한 색과 형태에 담긴 사회적 약속과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작고 단순한 기호이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며 조금 더 살기 좋은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최근 양산시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완전히 바꿨다. 글의 양을 대폭 줄이고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픽토그램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나 불편 없이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평등의 실천이기도 하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기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 뜻을 깊이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다. 저마다의 색깔과 도형을 가진 픽토그램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 또 세상을 더 새롭게 바꿀 픽토그램은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는 유쾌한 사회적 상상력을 키워보자.



우리가 몰랐던 한국 미술 이야기

박영수 글, 곽진영 그림

다락원 / 2026 / 128쪽

한국인은 한국 미술에서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어요.

책 속 구절,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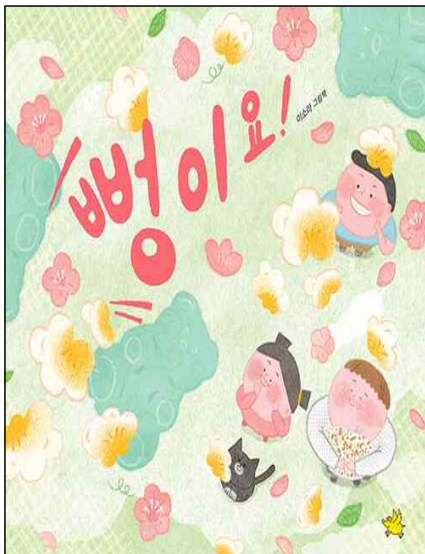
알수록 더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미술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문화의 바람을 더 거세게 만들었다. 영화에서 보이는 현대적 문화는 물론 저승사자와 호랑이 ‘더피’, 까치 ‘서씨’ 같은 전통적 요소까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들의 원형을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온 발길들로 국립중앙박물관 안팎이 꽉 찼을 정도다. 정작 우리는 한국 미술을 아직 잘 모르는데 말이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미술만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궁금증을 바탕으로 어린이가 가질 만한 질문과 답 20가지를 엮었다. 왜 옛날 그림에는 그림자가 없는지, 모나리자 미소에 버금가는 작품은 무엇인지, 개와 고양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등을 쉽게 설명한다. 거기에 대표 작품의 생생한 사진과 익살스러운 만화컷, 유익한 미술 상식이 더해져 알찬 내용들을 읽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다.

그릇 두 개를 이어 붙인 달항아리, 상감기법으로 만든 청자, 그림 뒷면을 색칠해서 생생하게 피부색을 표현하는 배채법 등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특색이다. 문자에 그림을 입힌 윤리문자도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강조하던 조상들의 삶을 보여준다. 또 책이 주인공인 책가도와 책거리를 사랑방에 거는 유행이 있었던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책을 소중히 하고 배움을 사랑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 책은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즐길 수 있는 박물관 도슨트와 같다. 책장을 넘길수록 미술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한층 깊어진다.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새로 발견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을 방문하기 전에 이 책을 미리 읽고 간다면 관람이 얼마나 더 재미있을까!



뽕이요!

이소라 글·그림

노란돼지 / 2026 / 40쪽

정말 마법사일까?
무엇이든 크게 튀겨준다고?
흠, 그렇다면...

책 속 구절, 25쪽

뽕! 하면 팡 터지는, 신나는 오일장 나들이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여러 곳이 떠오르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시장이다.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흔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를 이용하지만, 시장에는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높고 높은 천마산 그 아래 장터. 땃새에 한 번 열리는 오일장에 할머니의 심부름을 하러 가족들과 함께 나선 아이의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지글지글 호떡 굽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홀린 듯 멈춰 세운다. 식혜 아줌마는 마시자마자 머리가 땡-해질 만큼 시원한 밥알 동동 마법의 식혜를 건넨다. 찰랑찰랑 시원한 꽃무늬 바지에 햇별을 가려줄 모자를 쓰는 순간 동네에서 제일가는 멋쟁이로 만들어 주는 옷 가게까지. 이처럼 오일장 곳곳에서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다.

가판대에 누운 생선과 눈싸움을 하던 중 뻘악! 호루라기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획 돌리자 무엇이든 크게 튀겨주는 마법사, 뽕튀기 할아버지가 보인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젤리곰, 코딱지, 동전 같은 엉뚱한 물건들을 내밀어 본다. 할아버지는 눈을 찡긍하며 미소를 지으시더니 어떻게 튀기면 좋을지 유쾌한 고민에 빠진다. 뽕튀기 기계 속에서 뭐가 나올까? 뽕! 소리와 함께 상상력과 재치도 한층 더 커진다.

작가는 귀엽고 따뜻한 그림체로 장터의 풍경을 정겹고 실감 나게 그려낸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주인공 가족과 함께 오일장을 구경하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아이의 순진한 상상을 깨트리지 않고 지켜주는 어른들의 모습이 다정하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가까운 시장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것이다. 갓 튀겨 낸 뽕튀기처럼 포근한 온기와 웃음이 오래 남는 그림책이다.